

농어촌공사, 「ECO-4U센터(에코-포유센터)」 공식 출범

- 환경 안전에 ‘중추’ 역할...전문성과 신속성으로 현장 상황 대응력 높인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ECO-4U센터(에코-포유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6,327여 개소로,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ECO-4U센터는」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운영되며,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환경관리처	환경사업부	차 장 김재욱 (061-338-5822)
			과 장 이상근 (061-338-5825)
		수질환경부	차 장 김상진 (061-338-5840)

1 추진 배경

- 현장 일선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 접수, 해결, 사례전파 등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체계 구축**
- 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상담·자문 위주의 기술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제해결 기능 강화**

2 운영 계획

- (명칭) ECO-4U센터* (*4개 권역 언제 어디서나 환경문제 발생 시 반드시 응답하는 메아리)
- (기능) ECO-4U센터는 환경 분야별 전문기술 응대, 찾아가는 현장대응조사 등 환경관련 전사적인 업무추진(본사↔지역본부↔민간전문가)
- (운영) 센터장은 환경관리처장이며 수질오염기술지원단(단장 수질환경부장), 환경평가기술지원단(단장 환경사업부장) 운영
- (절차) 발생, 접수, 해결, 사례전파 순으로 신속하고 조직적인 절차 운영

ECO-4U센터 운영 절차



3 조직 구성 및 주요업무

- (구성) 1센터, 2개 지원단(수질오염기술지원단, 환경평가기술지원단)
- (주요업무) 수질분석, 유류오염, 어류폐사, 녹조발생, 사전환경입지검토, 사업장 환경현안, 환경관련 부정정보, 생태계보전 등

